

2023년 동남권 수출 전망

이 글 연구위원 (glee@bnkfg.com)
백충기 경제산업팀장 (cgbaek@bnkfg.com)

2022년 동남권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1,428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정제 수출이 81.0% 급증하고 자동차, 철강 등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시현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며 수출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동남권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G2 경기 부진, 환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지역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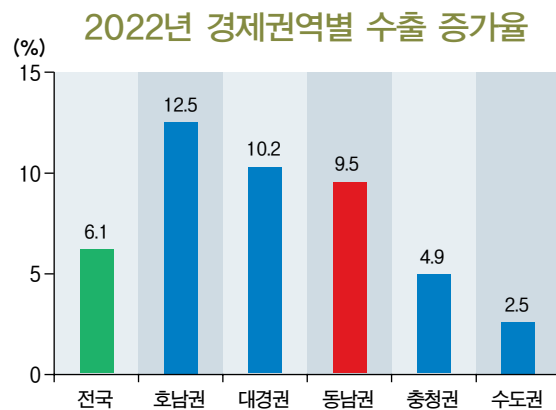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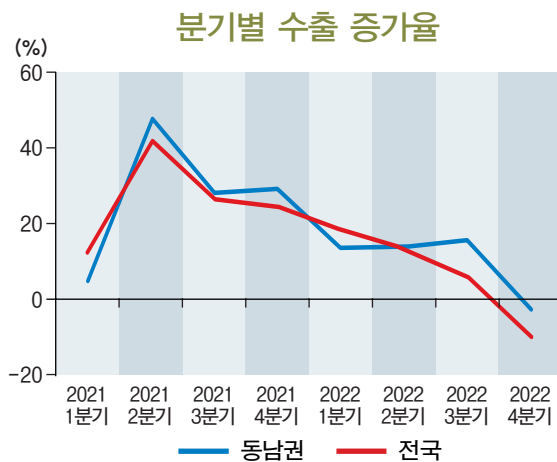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조선이 수주물량 인도 증가 등으로 4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자동차도 1.7%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계(-1.0%)가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철강(-11.4%), 석유화학(-11.2%), 석유정제(-10.0%)는 두 자릿수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동남권 수출, 상고하자 흐름 보이며 9.5% 증가

2022년 동남권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1,428억달러를 기록했다¹⁾.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시현한 것이다²⁾. 반면 전국의 경우 6.1% 늘어나며 동남권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³⁾.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5.8%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분기중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며 -2.7% 감소하는 등 수출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⁴⁾⁵⁾.

경제권역별로는 호남권(12.5%)과 대경권(10.2%) 다음으로 동남권(9.5%)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⁶⁾. 반면 충청권(4.9%)과 수도권(2.5%)의 경우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진 등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미약한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2) 강원권, 제주권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본 연구의 수출실적은 금액(달러) 기준. 물량기준 동남권 수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
- 2022년 동남권 수출 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1,228억달러)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1,582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에 해당
- 2022년중 전국은 수출 증가(6.1%)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증(18.9%)하며 2008년(133억달러 적자) 이후 14년만에 무역수지 적자(475억달러)를 기록. 동남권의 경우 427억달러 흑자로 조사
- 전국의 경우 2022년 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9.9%의 높은 감소율 기록
- 2022년 5대 수출품목별 증가율(%), 괄호내는 증가율, MTI 3단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남권	석유제품(81.0)	자동차(15.2)	선박(-28.3)	자동차부품(3.2)	합성수지(-5.2)
전국	반도체(1.0)	석유제품(65.1)	자동차(16.4)	합성수지(-3.7)	자동차부품(2.4)

6) 호남권은 석유제품, 대경권은 기타정밀화학원료(친환경차 배터리 원료)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며 호조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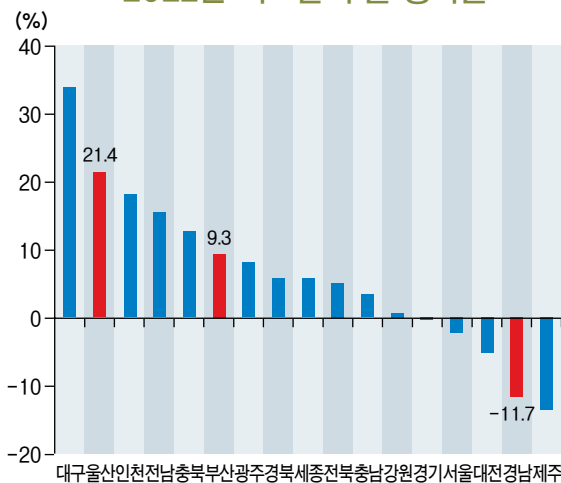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울산(21.4%)과 부산(9.3%)이 증가했으나 경남(-11.7%)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수출 증가율 순위는 울산이 2위, 부산이 6위, 경남이 16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이 81.5% 급증한 것이 수출 호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⁷⁾. 2~3위 품목인 자동차(13.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0.1%)도 증가했다. 반면 4~5위 품목인 합성수지(-6.1%), 동제품(-14.0%)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5대 수출 품목 중 철강판(-14.8%)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43.1% 늘어났으며⁸⁾ 철강판및철강선(9.8%), 원동기및펌프(13.8%), 주단조품(26.2%)도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위 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41.9%의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2위 자동차부품(-5.5%), 3위 원동기부품(-9.4%), 4위 건설광산기계(-0.2%)도 감소하며 동남권 지역 중 유일하게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5위 금속공작기계(11.2%)의 경우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⁹⁾.

2022년 시도별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주력품목별 수출 증가율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1	자동차	43.1	석유제품 81.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1.9
2	철강판	-14.8	자동차 13.0	자동차부품 -5.5
3	철강관및철강선	9.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0.1	원동기및펌프 -9.4
4	원동기및펌프	13.8	합성수지 -6.1	건설광산기계 -0.2
5	주단조품	26.2	동제품 -14.0	금속공작기계 11.2

주 : MTI 3단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7) 석유제품은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수요 및 수출단가가 급등하면서 수출 호조세 시현

8) 르노자동차의 XM3, QM6 등이 유럽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 견인

9) 주요품목인 금속절삭가공기계의 미국(32.2%), 독일(36.4%), 베트남(71.9%) 수출이 증가하며 실적 확대

2023년 동남권 수출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는 2023년중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IMF, OECD 등 주요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1.7~2.9%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3.4%)대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¹⁰⁾.

무엇보다 전세계 GDP의 42.4%를 차지(2021년 기준)하는 G2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주요 전망기관에서는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이 1%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중국도 성장목표치(5.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¹⁾.

전세계 수입수요 증가율의 경우 2022년 4.7%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2022년 9.0%에서 2023년 -1.2%까지 하락하며 감소세로 전환되고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p)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세계	3.4	2.9	-0.5
미국	2.0	1.4	-0.6
중국	3.0	5.2	2.2
일본	1.4	1.8	0.4
베트남	7.0	6.2	-0.8
싱가포르	3.0	2.3	-0.7
호주	3.6	1.6	-2.0

주 : 1) 2022년 동남권 수출액 상위 6개 국가
2) 2023년 1월 발표 기준
3) 베트남, 싱가포르는 2022년 10월 발표 기준
자료 : IMF

주요국 수입수요 증가율 전망

(%, %p)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세계	4.7	2.4	-2.3
미국	9.0	-1.2	-10.2
중국	-2.4	1.7	4.1
일본	4.9	2.0	-2.9
베트남	0.9	8.2	7.3
싱가포르	8.4	5.2	-3.2
호주	13.7	5.9	-7.8

주 : 1) 2022년 동남권 수출액 상위 6개 국가
2) 2022년 10월 발표 기준
자료 : IMF

10) 주요기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괄호안은 전망 시점)

· IMF(2023.1월) : 2.9% · OECD(2022.11월) : 2.2% · 세계은행(2023.1월) : 1.7%

11) 주요기관 2023년 G2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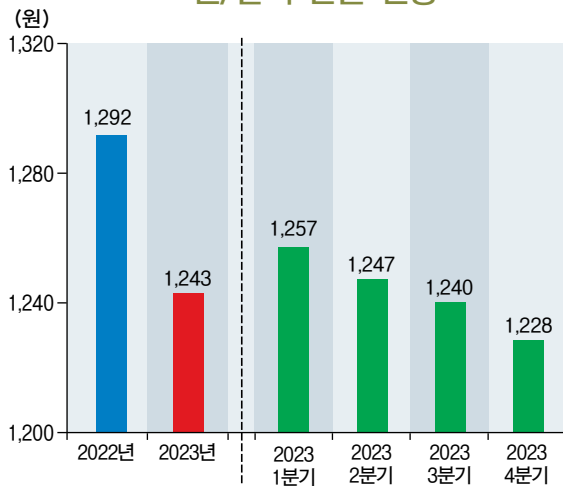
구분	IMF	OECD	세계은행
미국	1.4	0.5	0.5
중국	5.2	4.7	4.3

원/달러 환율 하락도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의 긴축속도 완화¹²⁾, 유로화 등 주요 통화의 가치상승 등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년 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1,230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¹³⁾.

국제유가는 금년중 하락할 것으로 예상¹⁴⁾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출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적일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자동차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반면 석유화학, 석유정제, 조선 등의 경우 단가 하락 및 발주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¹⁵⁾.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도 올해 수출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조사¹⁶⁾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출기업중 46.9%가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16.9%)의 2.8배에 달한다. 세계경제 둔화, 공급망 애로, 환율·금리변동 등을 3대 리스크로 지목했으며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러-우 전쟁 등도 주요 불안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원/달러 환율 전망



주 : 1) 2023년 2월 발표 기준

2) 2023년은 주요 해외IB 전망치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국제유가 전망

WTI						
(달러/배럴)						
구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WTI	97.7	82.2	82.6	81.6	82.3	82.3
Brent	103.71	89.4	89.5	88.6	89.7	89.6

12) 2023년초 연준 이사회 인위교체로 인한 온건파 비중 확대 등도 긴축 속도 완화 요인으로 지목

13) 다만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면서 1,300원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14)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국제유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중국 경기 반등세 강화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

15) 자동차는 유지비 감소와 실질소득 증가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수출단가 하락, 조선의 경우 산유국 특수선 발주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

16) 2021년 기준으로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인 1,327개 기업에 대한 2022년말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조선 · 자동차는 증가하겠으나 석유정제 · 석유화학 · 철강 · 기계는 감소할 전망

조 선

2022년 동남권 조선업 수출은 전년대비 -28.3% 감소한 138억달러로 조사됐다. 2019~20년 수주 부진, 인력 부족에 따른 건조 지연, 해양플랜트 수출 역기지효과¹⁷⁾ 등이 감소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금년에는 2021~22년중 크게 늘어난 수주물량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LNG운반선과 함께 2021년중 수주가 집중됐던 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출 호조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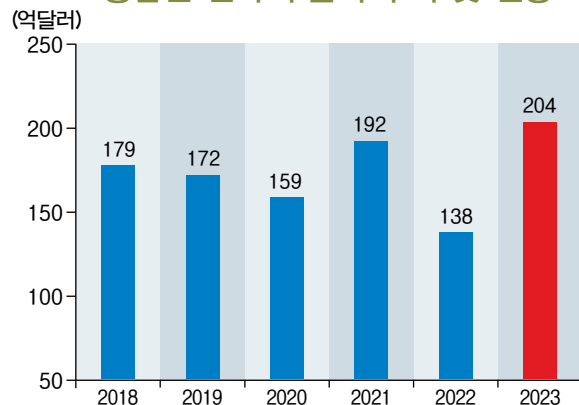
이에따라 2023년 동남권 조선업 수출은 전년대비 47.5% 상승한 204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며 2017년(386억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전망기관에서도 2023년 국내 선박 수출이 232~321억달러에 달하면서 2021년 수준(230억달러)을 상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¹⁹⁾.

국내 선박 수주 규모 및 점유율

구분	전세계 발주량	국내 수주량	점유율 (만CGT,%)
2018년	3,704	1,356	36.6
2019년	3,245	1,009	31.1
2020년	2,666	893	33.5
2021년	5,400	1,786	33.1
2022년	4,308	1,627	37.8

자료 : Clarksons

동남권 선박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746(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17) 2021년 모잠비크에 인도된 24억달러 규모의 FLNG(해상부유식 액화설비) 수출로 인한 역기지효과로 파악

18) 국내 조선사는 2021년 발주된 1.2만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1,151만CGT 중 48%에 해당하는 549만CGT를 수주. 척수로는 194척 중 49%인 95척에 해당

19) 주요기관별 2023년 국내 선박 수출 전망(억달러, %,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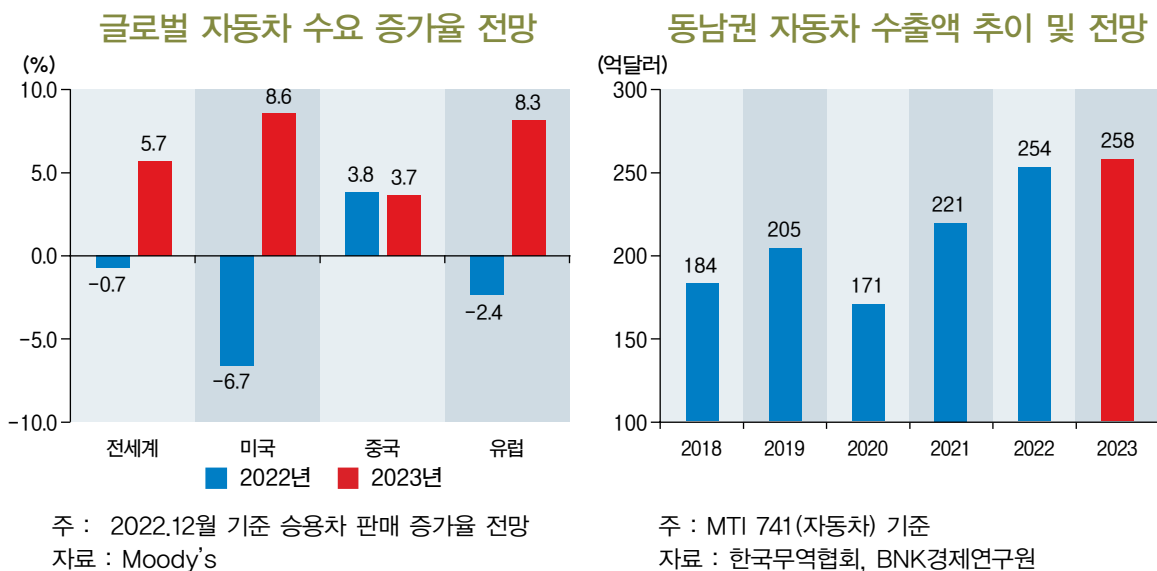
구분	산업연구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295	321	257	232
증가율	42.4	76.1	41.0	27.4

자동차

2022년 동남권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2% 증가한 254억달러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²⁰⁾. 이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차질 완화, 주요국 시장점유율 상승²¹⁾, 친환경차²²⁾ 및 SUV 판매 호조 등에 기인한다.

2023년 동남권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58억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 수요 확대,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²³⁾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년중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수요는 각각 8.6%와 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도 3.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효과 축소²⁴⁾, 업체간 경쟁심화 및 러시아 불확실성 등이 성장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RA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동남권 최대수출국인 미국내 점유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²⁵⁾.



20)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2년중 매출액이 각각 142.5조원, 86.6조원의 역대 최대치를 시현

21) 현대·기아차의 2022년 해외시장 점유율은 미국 10.6~10.8%, 유럽 9.4% 등 주요국에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국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22) 동남권 전기차 수출 증가율(%) : 21.0(2020년) → 41.1(2021년) → 49.7(2022년)

23) 현대차의 경우 적극적 투자, 마케팅 등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3년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8.8% 증가한 354만대로 설정

24) 현대차의 2022년 매출 증가액(24.9조원) 중 36.1%인 9.0조원이 환율효과로 파악

25) IRA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Clean Vehicle)에는 일반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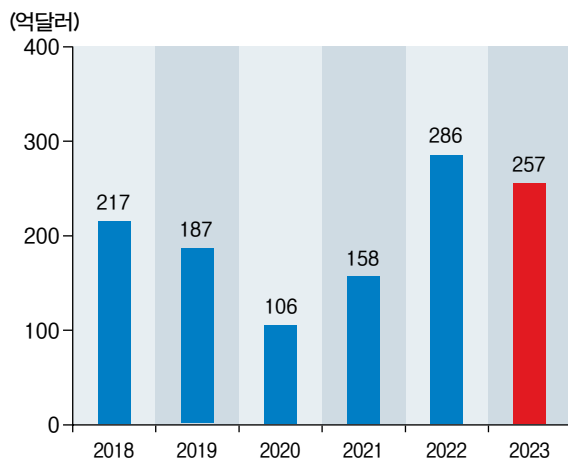
석유정제 · 석유화학

2022년 동남권 석유정제 수출은 전년대비 81.0% 급등했으나 석유화학은 -3.3% 감소했다. 석유정제 호조는 고유가로 인한 수출단가 인상, 러-우 전쟁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화학의 경우 포장용기, 의료용품 등 언택트 수요 감소, 글로벌 제조업 부진 등이 감소요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석유정제 수출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257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이동수요 증가로 항공유 수출 호조 등이 기대되나 유가 안정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²⁶⁾ 및 역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도 전년대비 -11.2% 감소한 1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대수출국 중국의 생산능력 및 자급률 상승, 글로벌 공급 과잉²⁷⁾, 전방산업 수요 둔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²⁸⁾ 등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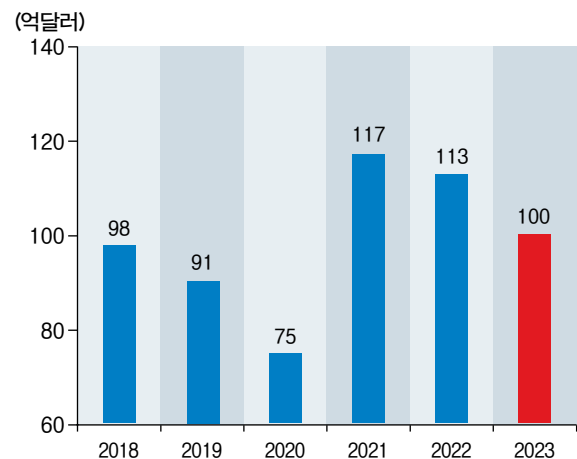
동남권 석유정제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133(석유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동남권 석유화학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21(석유화학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26) 산업연구원은 유가하락으로 2023년 석유제품 단가가 전년대비 큰 폭(-17%)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27) 2020~22년중 에틸렌 생산능력은 생산설비의 집중적인 증설로 인해 3천5백만톤 늘어났으나 같은기간 수요는 2천2백만톤 증가에 그치며 과잉공급 심화 우려 부각

28) 천연가스 가격 하락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기반(NCC) 에틸렌 계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북미 및 중동의 천연가스 기반(ECC) 제품 대비 약화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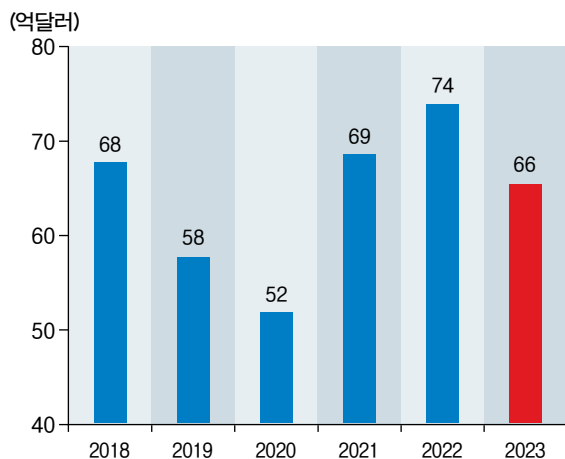
철강 · 기계

2022년 동남권 철강수출 실적은 7.3% 증가한 74억달러로 파악됐다. 상반기중 수출 단가 상승, 중국 철강생산 축소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증가폭은 축소됐다²⁹⁾. 동남권 기계 수출의 경우 주요국 경기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0.2% 감소하며 14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동남권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6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요국의 수요 증가세가 1%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³⁰⁾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던 철강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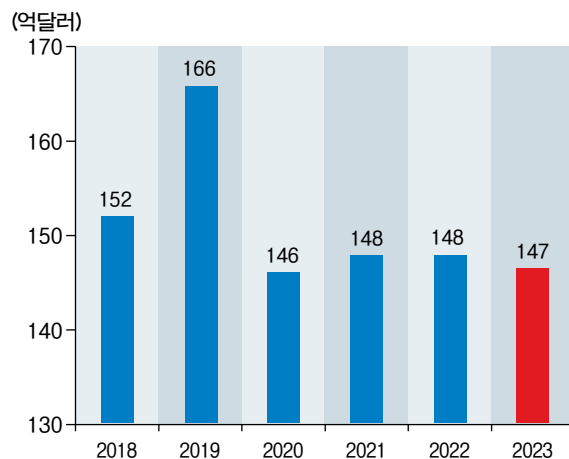
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147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장기계가 글로벌 제조업 둔화, 소비심리 악화,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기계는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인도 등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철강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61(철강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동남권 기계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MTI 71, 72, 75, 79 합계(일반기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29) 2022년 동남권 철강수출액은 상반기중 29.6% 증가했으나 하반기중 -10.6% 감소

30) 세계철강협회에 인도를 제외하면 일본(1.7%), 미국(1.6%), 한국(0.0%), 중국(0.0%), 독일(-3.9%), 러시아(-10.0%) 등 주요국의 2023년 철강수요 증가율이 모두 1%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31) 다만 연초들어 중국 리오프닝 기대 등으로 철강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방향성을 주목할 필요

2023년 동남권 수출, 전년대비 1.5% 증가한 1,450억달러 전망

2022년 동남권 수출은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교역환경 속에서도 9.5%의 성장세를 시현하며 전국 증가세(6.1%)를 상회했다. 석유정제 수출 증가율이 80%를 넘어서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한데 기인한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45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G2 경기 부진, 환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은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동남권과 달리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³²⁾.

업종별로는 조선이 수주물량 인도 증가 등으로 47.5%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자동차(1.7%)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계(-1.0%)가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철강(-11.4%), 석유화학(-11.2%), 석유정제(-10.0%)는 두 자릿수의 높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동남권 수출 전망

(억달러, %)

구분	금액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조선	138	204	-32.5	47.5
자동차	254	258	13.2	1.7
석유정제	286	257	82.2	-10.0
석유화학	113	100	-2.2	-11.2
철강	74	66	7.7	-11.4
기계	148	147	-0.7	-1.0
기타	415	418	5.9	0.8
합계	1,428	1,450	9.5	1.5

주 : 조선은 MTI 746, 자동차는 MTI 741, 석유정제는 MTI 133, 석유화학은 MTI 21,
 철강은 MTI 61, 기계는 MTI 71 · 72 · 75 · 79 합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경제연구원

32)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지속, 대외여건 악화,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국내 수출이 전년대비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2023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2.12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2023.1
 한국금융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 2022.12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입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2.11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2022.12
 한국은행,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2022.12
 Moody's, “Credit Opinion,” 2022.12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연합뉴스포맥스, yonhap.einfomax.c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IMF, www.imf.org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09	동남권 인구가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G2경제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11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2년 동남권 경제

2023

01	2023년 동남권 수출 전망
----	-----------------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린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3-0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정성재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3년 1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